

1. Adam und Harborth, <http://www.adamundharborth.de>

Jörg Dominik, Adam Harborth

제품 디자인: 종이 꽃이 "Babel"

책상 위의 성서에서와 같은 혼란은 BABEL이 정리한다. 그 혼란 속에 묻혀 자칫 찾지도 못하고 잃어 버릴 염려가 있는 그 모든 것 BABEL이 정리한다: 명함, 영수증, 초대장, 각종 서류, 선거통지서, 편지, 또는 A4용지 크기의 세금통지서들은 안쪽으로 비스듬한 투입구로 이루어진 아치형5단 탑의 구조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된다.

BABEL은 이들의 혼란을 꿈만 같이 기하학적 정돈으로 바꿔 놓는다. 정돈된 모습이 이렇게 매력적인 적은 없었다. 책상의 정리. 정돈이 이렇게 재미있던 적은 없었다.

BABEL은 Schwarzwald에서 직접 구한 나무재료를 이용해 수공예로 만들었다.

판매처: Siebensachen, München www.siebensachen.com

2. Anne Boenisch (erstererster), <http://www.erstererster.de>

제품 디자인: 전등(건본품) "Flake"

깃털처럼 가벼운 FLAKE는 스티로폼의 구조적 특성과 빛의 투과성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스티로폼을 흔히 생각 할 수 있는 용도로서가 아닌 한 공간에 존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 탄생시켰다. 전원을 켜올 때 빛과 스티로폼 소재의 어우러짐은 하나의 매혹적이 장면을 연출하고 스티로폼 입자들의 유기적 구조는 FLAKE 램프가 지닌 각진 윤곽선의 형태에 의해 끊임없이 깨어지게 된다. 스티로폼의 제작 방법에서 영감을 얻은 FLAKE는 일반적인 스티로폼의 용도가 아닌 스티로폼 소재 이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3. Bless, <http://www.bless-service.de>

Ines Kaag, Desiree Heiss

제품 디자인/ 패션: 자동차 커버 "No.35 Automatica"

BLESS N° 35 Automatica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Desiree Heiss, Ines Kaag 듀오의 새로운 창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국의 Intersection Magazine을 위해 BLESS와 다른 디자이너들이 함께한 자동차 커버 디자인 프로젝트 중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다.

이 커버의 아이디어는 자동차의 전조등에서부터 배기관까지를 덮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형태를 집안으로 들여 와 그 위에 앉거나 잘 수 있는 소파의 용도로 쓰는 것이다.

무선조종자동차는 특별히 디자인되고 변형되었으며 다른 형태로 꾸며졌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진다.

„Planter“는 화분같은 기능을 하고 „Black Rocket“에는 i Pod를 연결해 자동차 조종 중에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Servancer“는 여러분에게 쿠키나 잡지책 혹은 여러분의 열쇠를 은이나 금 쟁반 위에 다 가져다 준다.

4. Elegant Embellishments, <http://www.elegantembellishments.net>

Allison Dring, Daniel Schwaag

제품 디자인/ 건축: 건축 타일 "Prosolve370e"

Prosolve370e는 효율적인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건축 예술적 장식 타일이다.

기존의 타일보다 더욱 향상 된 기술로 만들어진 이 타일은 건물이 주위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5. Heike Buchfelder, <http://www.pluma-cubic.com>

전등 디자인: 바닥램프 "Pluma Cubic R2"

Pluma Cubic은 하나의 빛을 내기 위해 자연의 깃털과 선명한 기하학적 모양이 한데 어우러져 묶인 공생관계를 나타낸다. 이 램프는 두 가지 상반 된 면을 표현한다: 자연스럽게 날아갈 듯 한 아름다움, 그에 반해 그 모든 요소들이 흐트러지지 않기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안정감.

6. .ini, <http://www.inimalism.com>

제품 디자인: 어른들을 위한 미니자전거 ".ini bike"

iniBIKE는 성인을 위한 커다란 세발자전거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앉게 되는 안장은 매우 편안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케 하면서도 재미와 만족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

iniBIKE는 매번 그것을 탈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7. Jpech.net, <http://www.jpech.net>

오디오/ 비디오 설치

2001년부터 베를린 VJ팀 JPECH는 그들의 '3-Akkord Optik' 을 클럽이나 파티, 전시회 그리고 패션쇼 등에 직접 설치하여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아시아에 소개하고 있다. JPECH는 유일무이한 그들의만의 방법으로 미술, 디지털 포토그래피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모든 기술과 빛을 조화시킨다. 그들은 역동적 방법을 기반으로 새로이 그들의 능력을 표출한다.

8. Judith Seng, <http://www.judithseng.de>

제품 디자인: 접시 "Fingerbowl"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문을 넘겨준다는 것은 두터운 신뢰와 명백한 동의가 요구된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그저 단순히 주지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테마들조차 우아한 행위로 비춰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작자: Industreal ® 판권소유

9. Julian Appelius, <http://www.julianappelius.de>

제품 디자인: 테이블/ 침실 스탠드 "Left or Right"

이것은 침실 스탠드일 수 있다. 이 전등은 침대의 왼쪽과 오른쪽을 에워싼다. 벽에도 고정 가능한 이 전등은 단순히 빛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침실의 자그마한 테이블처럼 쓰이기도 한다.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Left or Right“ 는 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열쇠나 핸드폰 보관함이 되고 욕실에선 칫솔꽂이가 되며 주방에서는 각종 양념 및 조미료 보관함이 된다. 책상 위에서 이 전등은 각종 필기구의 수납공간이 되고 상점에서의 이 전등은 그곳의 상품들을 보다 더 아름답게 비춰준다. 좌 형과 우 형으로 나뉘는 이 매력적인 조명은 비단결 소재의 하얀색, 무 광택의 옅은 검은색 그리고 윤기 나는 빨간색으로 가루코팅을 한 세 종류가 있다.

10. Kinzo Architecture, <http://www.kinzo-berlin.de>

Chris Middleton, Martin Jacobs, Karim El-Ishmawi

가구 디자인: 사무실 테이블 시스템 "Kinzo AIR"

우리에 미래를 향한 여행은 KINZO AIR를 선택하면서 시작되었다. 획기적인 일자리, 우주왕복선같이 매우 진취적이고 성능이 우수하며 과거의 사무실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KINZO AIR는 여러분의 경영 철학을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킬 것입니다. NASA처럼 일하는 KINZO AIR.

11. Kix Berlin, <http://www.kixberlin.com>

François-xavier Loucheur, Kevin Léné, Olivier Grégoire

악세사리: 책관련 커버/ 베개 "No.1"

etc...N1- 독자들의 친구. N1은 베개이면서 동시에 책가방이고 집, 침대뿐만 아니라 버스, 비행기, 공원에서 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N1은 독서를 다른 업무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용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입니다.

12. Läufer und Keichel, <http://www.laeuferkeichel.de>

Julia Läufer, Marcus Keichel

제품 디자인: 회의실 의자 "Soft X", 의자(견본품) "La Robe", "Gira"

Soft X는 완벽한 쿠션이 겸비된 회의실 혹은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의자이다. 이 의자의 특징은 시각적인 가벼움을 의자에 선사하며 동시에 통풍효과를 겸비한 등받이와 좌석사이의 타원형 모양으로 트인 공간이다. 제작자: Martela Oyi

13. Mark Braun Design, <http://www.markbraun.org>

Mark Braun

제품 디자인: 추 모형 전등(건본품), „Two“

도자기 전등 „Two“의 아이디어는 유연한 빛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전등은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천장에 부착할 수도 있으며 벽에 간단한 고리만 있으면 바로 걸 수도 있다. Two는 이러한 다양한 위치 선정성을 통해 매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흰 자기와 검은 자기의 조화는 재료의 다양성과 각각의 색깔 그리고 표면처리를 잘 보여준다.

설계자: Mark Braun, 2008년 판권소유

14. Morphorm, <http://www.morphorm.de>

Martin Schatz

악세사리/ 선물: "Fortune Cookies", 미역채취 로봇 모델 "Nori Ninja", 편집 디자인 "Korea Design Kultur"

Morphorm은 DMY Asia Tour 2008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타이완 오프닝 : 유명한 „China Fortune Cookie“

도쿄(일본): 혁신적인 미역채취 로봇 „Nori Ninja“

책발간 기념행사 서울(한국): „Korea Design Culture“

15. Osko&Deichmann, <http://www.oskodeichmann.com>

Oliver Deichmann, Blasius Osko

제품 디자인: 천장램프 „Abyss Spot“

척추모양을 하고 발광다이오드로 빛을 내는 Spot은 마치 자신의 주위를 빠짐없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Abyss 램프의 유일한 모듈구조는 유연하지만 견고하고 사방으로 빛줄기를 뺏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램프의 형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제작자: Kundalini www.kundalini.it

16. Andrea Pöbniicker (PvanB), <http://www.pvanb.de>

실내건축: 벽지 "Pomp"

POMP는 ARTE(벨기에)의 협력으로 이루어 낸 Andrea Pöbniicker의 업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패션가게, 호텔, 로비, 레스토랑, 클럽, 박물관 그리고 회의실까지 수많은 곳이 POMP 사용을 통해 현대적인 궁전으로 바뀌었다.

17. Ronen Kadushin, <http://www.ronen-kadushin.com>

제품 디자인 / Creative Commons: 접시 "Flat Knot"

Flat Knot-특수광으로 만든 과일접시는 레이저로 자르고 사람 손으로 직접 구부려 만들었다. 이 접시는 Open Design Collection의 작품 중 하나이며 Open Design Collection의 작품설계도들은 Creative Commons Licence의 관리 아래 자유로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사 또는 수정도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8. Roomsafari, <http://www.roomsafari.com>

제품 디자인: 기대는 옷걸이 대 "Lean On", 옷걸이 "Triangle",
우산꽃이 "Lucky Clover"

“Lean On“ 옷걸이 대: 안정적으로 벽에 기대놓을 수 있는 이동식 옷걸이 대. 재료: 호두나무와 솔질된 알루미늄.

„Triangle“: 심플한 옷걸이 그리고 모든 옷장의 음악적 동반자.

„Lucky Clover“: 우산꽃이 속 네잎클로버. 재료: 솔질 된 알루미늄,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섯가지 색의 네잎클로버 모양의 리본.

연 락 처

press@dmy-berlin.com

Tel +49. (0)30. 53 21 31 28

DMY Berlin GmbH & Co KG
Am Flutgraben 3
12435 Berlin, Germany

www.dmy-berlin.com